

# 최근 베트남의 석유산업 동향

이 자료는 AP Energy Business Publication Pte Ltd. 에서 발간한 「Petromin」誌('92. 11월호)에 서 발췌하여 옮긴 것이다.

〈편집자 주〉

풍부한 석유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베트남은 이 자원을 토대로 경제발전의 부른 기대를 안고 있다. 사모하메드 레자 팔레비는 이란은 「위대한 문명」의 출발점에서 있다고 했으며, 카를로스 안드레스 페레즈는 「위대한 베네수엘라」라고 언급한 바 있다. 베트남은 이러한 극적인 표현은 하지 않았지만 15억-30억배럴의 석유와 수조입방피트를 헤아리는 천연가스를 보유함으로써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는 마지막으로 대규모 탄화수소물질을 보유한 국가로 평가받고 있다. 베트남이 개방됨으로써 세계석유산업에서는 미개척된 거대한 석유매장지가 하나 더 추가되는 셈이다. 최근 베트남을 방문한 BP 社의 한 이사는 『2000년대는 베트남이 아시아지역이 아닌 세계의 대산유국으로 발돋움하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러한 낙관론은 '91년 해상유전개발에 90백만달러를 투자했던 모기업이 '92-95년동안 150백만달러를 추가 투자할 것을 계획한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베트남의 야심찬 석유산업중사자간에도 머지 않아 자국이 아시아의 대산유국이 될 것이냐는 기대에 부풀어 있다. 그러나 지난 3년동안 18개의 공구를 뚫고 500백만달러를 넘게 투자하였지만 아직 뚜렷한 상업성 유전은 발전하지 못했다. 이는 수십 깊이 뚫지 않고 지질학적 자료가 부족했기 때문에 실망할 단계는 아직 아니다. 석유매장가능지는 대부분

시추작업에도 들어가지 않은 상태며 한정적으로 착수된 탐사작업만 높은 기대를 걸고 있다. 베트남 석유개발 사업에는 생산원유의 지분확보에 융통성이 있어 다른 국가들에 비해 투자지역으로는 유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비소련국가의 개발참여가 허용된 1987년 말 이후 해외석유회사들은 오래전부터 호감을 지녔던 이 지역을 대상으로 개발기회를 모색하고 있다.

베트남의 해상유전개발은 1990년부터 재개되기 시작하여 '92년 들어서도 계속되고 있고, 90년대 중반까지는 석유개발이 더욱 활발히 전개될 전망이다. 따라서 1995년까지는 소기의 성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美國은 베트남에 대한 수출금지조치로 美國석유회사의 참여는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베트남에서 사업중인 다른 석유회사들은 미국의 불참으로 보다 유리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어 앞으로의 전망을 매우 밝게 보고 있다. 美國의 금수조치는 1992년 말경이나 1993년초에 해제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는데 이 경우 미국석유회사(현재 대기 중에 있음)들의 진출은 매우 활발히 이루어질 전망이다.

한국과 日本의 석유회사들은 한때 미국의 금수조치에 동참하여 베트남석유개발사업에서 철수했었으나 1992년초부터 베트남석유회사와 합작계약을 시

도하여 6월에는 입찰에 성공, 높은 지분을 확보하게 되었다. 1970년 이후 원유도입선다변화정책을 추구하고 있는 이 두나라는 베트남을 원유도입국의 하나로 구상해왔다. 석유산업소식통에 의하면 日本국영석유회사와 MITI社가 베트남의 해상유전개발에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르크스·레닌주의자들로 인해 지난 30년동안 전쟁과 통제의 소용돌이에 휩싸였던 베트남은 현재 1인당 GDP가 200달러로써 세계의 최빈국대열로 전락되어있다. 적은 해외원조로 긴급정책을 펴고 있는 베트남정부는 국제금융과 외환관리를 통하여 확보한 재원으로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해상유전개발을 추진코자 계획중이다. 현상태에서 석유는 경제발전의 유일한 재원으로 평가되고 있다. 1990년후반부터 석유순수출국이 된 베트남은 석유수출을 확대시켜 외화획득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이미 베트남은 경제성장의 밑천이 되는 석유자금이 향후 얼마나 조성될지 관심을 가지고 있다. 1988년 이후 베트남에 투자된 해외자금 10억달러 중 절반은 석유부문에 투자되었고 정부지출의 5분의 1 이상은 석유부문에서 충당되고 있다. 원유는 쌀과 더불어 베트남의 주요수출품이며 무역수지를 유지시키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白虎유전은 2억배럴의 가체매장량을 지난 유전으로 베트남에서 석유가 생산되고 있는 유일한 유전이다. 베트남과 구소련이 반씩 출자하여 설립한 석유개발합작회사인 베트소비페트로社에서 운영되고 있는 백호유전은 1992년 하루 110,000배럴의 원유를 생산했으며, 이는 지난해 78,000배럴보다 40% 증가한 수준이다. 빅베어유전은 가체매장량이 400-600백만배럴로 평가되고 있으며 현재 컨소시엄결성에 대한 정부의 결정이 유보되고 있는 상황이다. 관측자들에 의하면 정부의 결정은 아마 연말까지는 보류될 것으로 확실하는데 이는 美대통령선거가 끝난 후 미국의 참여여부를 확인해 보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빅베어유전개발의 허가권이 있는 베트소비페트로社는 사실 이 유전을 개발할 만한 기술이나 자금이 부족한 형편이다. 베트소비페트로社와 합작하여 이 유전을 개발하는 데는 하루 200,000배럴의 석유생산에 3억달러의 비용이 들 것으로 추산된다. 베트소비페트로社는 빅베어유전개발에 앞서 소규모인 龍유전개발을 계획하고 있는데 50,000배럴이 생산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Dai Hung유전과 龍유전은 1994년까지는 생산이 어려울 것이며 백호유전은 현생산수준이 얼마나 지속될 지는 모르지만 '95년까지는 하루 250,000~300,000배럴의 석유를 생산할 수 있을 것이다. 베트남은 강대국인 소련의 몰락에서 받은 충격에서 바로 벗어나 실질적인 경제개혁을 단행했으며 硬貨지역을 대상으로 수출을 촉진시키고 있다. 베트남은 최근 예기치 않게 수출분이 거세게 일어나 1992년 상반기에는 초유의 무역흑자를 기록하였다.

11,000을 달러로 태환하는 등 Dong(베트남의 화폐단위)貨의 안정화를 추구함으로써 통화정책에 큰 성과를 거둔 바 있다. ADB에서는 지난 4월, 1992년 물가상승율을 45%로 전망했으나 지금은 약 20% 수준으로 낮게 보고 있어 고물가시대에서 벗어나는 전환시점에 있음을 알수 있다.

금세기의 눈부신 경제성장으로 베트남은 「잠자는 호랑이」로 불리우는데 손색이 없게 되었으며 급성장하고 있는 동아시아 및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같은 궤도를 걸고 있다. 베트남에 대한 향후 평가는 정책입안자들이 석유자금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이론적으로는 뜻밖의 석유재원으로 곧바로 고부가가치의 경제성과를 이룰수 있지 않겠느냐고 하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제도개혁을 단행, 자금의 흐름을 개선하는 것이 우선적이다. 그러나 지금 당장 제도를 개혁하기엔 시기적으로 너무 촉박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러한 석유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정부투자를 대규모 프로젝트에 맞추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정부정책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개발도상국의 경우 사업을 다양화시키기 보다는 몇개의 주요 사업에 집중 투자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현재 석유자금의 효과를 배가해야 한다는 중압박을 받고 있는 베트남도 그들의 경제전략을 매우 한정적으로 선택하고 있다. 따라서 석유재원을 석유정제부문에 투자해야 될지, 아니면 다른 사업에 투자를 해야될 지 사업선택을 두고 매우 고심하고 있는 듯하다. 베트남의 중공업 府의 의원들과 국가경제기획원에서는 외국과 합작기업을 통하여 하루 10만배럴규모의 정유공장을 현대식으로 건설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 정유공장

의 건설비는 15억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여타에서는 이 사업에의 경제성 결여를 내걸어 취약한 사회기간산업인 도로, 항만, 공항, 통신 부문, 석유저장시설, 유통시설에 투자를 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관측자들은 이 사업의 추진여부는 자금운용의 효율성과 베트남이 해외합작회사의 기술을 어떻게 소화시킬 것이냐의 여부에 달려있다고 보지만 이렇게 경제성 여부를 고려할 지는 의문스럽다고 말하고 있다.

베트남의 석유개발과 생산을 담당하고 있는 페트로베트남사의 건의에 의해 지난 5월 중공업부가 사업계획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에서 곧 결정이 날 것으로 보인다. 베트남의 여러 정부부처에 의하면 Petrolimex社(내수용 석유제품의 안정공급의 책임을 지고 있음)와 Petechim(원유수출전담사)가 페트로베트남사로 흡수되어 국가 통제하에서 운영되는 국영석유회사로 변모될 날은 머지않다고 보고 있다.

지난 4월 새로 법률이 개정되고 처음 국회(작고 전문적이며 강력한 정부)가 개최되는 10월부터는 석유정책에 대한 보다 합리적인 사고방식과 행정조치가 이루어 질 것이다.

석유를 행운으로 칭하는 경제학자가 일부 있는 반면 석유수출국을 처음에는 낙관적으로 여겼으나 차

츨 회의를 품는 학자들도 많다. OPEC창시자의 한사람인 Pablo Perej Alfonso는 낙관주의에 반박해서 「우리를 행운이라고 생각하겠지만 나는 그렇게 여기지 않는다. 나는 석유를 악의 산물이라고 부르고 싶다」고 했다. 역사적으로 살펴보아도 석유라는 뜻밖의 검은 황금을 행운으로 보기 보다는 불행으로 판명된 사례들이 많이 있다. 1970년대와 1980년대 동안 나이지리아, 베네수엘라, 멕시코같은 국가들이 겪었던 경험들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베트남은 현재 석유收入으로 경제성장의 꿈에 부풀어 있지만 이러한 석유산업의 붐으로 저절로 심각한 경제난이 해결될 수는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베트남은 높은 교육수준, 저임금, 그리고 석유·가스 와 같은 풍부한 천연자원으로 다른 최빈국과는 달리 세계에서 무한한 잠재력이 있는 나라이다. 그리고 향후에도 이와같은 무한한 잠재력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시장경제를 도입한 경제체제와 정치적 개혁을 단행할 수 있어야 하겠으며 또한 높은 석유수입을 합리적인 방향으로 투자하기 위해서는 투철한 국가관과 지도력 있는 정치가가 절대 필요하다. ♣

〈金柱憲 옮김〉

■ 알아봅시다 ■

M F A

섬유輸出·入國들 합의, 數量 자율제한  
...세계 시장 안정도모

〈多者間섬유협정〉

多者間 섬유협정(Multi-Fiber Arrangement)의 머릿글자로 韓國을 비롯한 34개 섬유수출국과 美國 등 9개 섬유수입국(EC는 1개국으로 간주)이 가입돼 있다.

이 협정은 개도국 섬유수출의 질서있고 공평한 증대를 보장하고 세계섬유시장의 교란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섬유수출입국간의 합의아래 자율적으로 수량제한(쿼터)을 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 협정에 의한 섬유류교역규제는 국가별 품목별로 선별적용되는데 이는 모든 가입국에 대해 차별없는 대우를 규정한 GATT(관세무역일반협정) 제1조 최혜국대우

원칙의 예외로 인정되고 있다.

처음 협정이 체결된 것은 73년말이나 세차례 연장돼 현재 MF AIV가 적용되고 있다. MF AIV의 당초 협정기간은 86년 8월부터 91년 7월로 기간이 만료됐으나 올해말까지 1차연장됐고 최근 내년말까지 다시 연장기로 합의됐다. 이 협정의 목적은 「규제」에 있으나 쿼터를 보유하고 있는 국가의 안정된 수출신장을 보장하는 측면도 있다. 이에따라 우리나라 처럼 대량의 쿼터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수출시장을 어느정도 보호받을 수 있는 이점도 있다.